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해야

더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 하고 또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목민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대간과 조정뿐이고, 백성과 하늘은 때때로 두려워하지 않는다(송부령도호 이종영부임서)".

목민관은 조정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사헌부와 시간원 벼슬아치들의 감시와 탄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은 두려워하지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백성과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으니 당연한 이야기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목민관들이야 대간이나 조정이 먼 곳에 있어 혹여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이나 하늘은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고 만다. 백성과 하늘은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임하고 마음으로 거느리고 함께 호흡하고 있으니, 잠시도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것이다. 무릇 도를 아는 사람이려면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목민관은 지방의 수령으로 상급기관인 대간과 조정이 있지만 조정과 대간을 거느리는 최고 통치자의 경우는 형편이 다르다. 조정과 대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백성과 하늘까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나와 역사를 후회시키고 백성과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 상식을 일탈해버렸던 그 많은 독재자들, 그들의 최후가 어땠던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유당 독재, 유신 독재, 5

공 독재 등 백성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온갖 악정으로 백성만 탄압하던 그들, 그들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 새파랗게 살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백성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법도 거부해버리고 유족들의 눈물 어린 호소까지 묵살하고 이태원 특별법까지 거부해버리는 오늘의 통치자를 보면서 다산의 이야기가 너무나 간절하게 들리고 있다.

국회는 바로 민의의 전당이다. 국회가 제정한 법은 대부분 거부해버리고, 민의를 묵살하고도 잘한 일이라고 홍보만하고 있으니 그렇게 백성들이 두렵지 않는다는 것인가. 백성은 두렵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늘도 두렵지 않는 것인가.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라!' 옛날 어른들이 두고 쓰던 말씀이다. 모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하늘, 하늘은 바로 자신의 양심이고 백성의 마음이다. 민심이 그래서 천심인 것이다. 말 없는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못짓고 솥불을 들고 외치고 있다. 그래도 백성들이 두렵지 않는다는 것인가.

"백성들이 모두 옳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까지 묵살하고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는가. 깨어있는 민중만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했다. 깨어있는 민중의 간절한 외침까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최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해 할 것이다. 귀먹은 하늘이 끝내는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러나 외민(畏民)·외천(畏天)의 상식을 따라야 한다.

정치란 어렵기도 하지만 쉽게 할 수도 있다. 깊은 진리나 높은 수준의 정치철학에 어둠더라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평범한 상식에 충실하기만 해도 큰 오류 없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정치원리에 충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정치는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는 어렵다고 말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상식만 제대로 이행하면 선치(善治)를 구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당사자 또한 불행에 빠지고 만다.

200년 전에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목민관으로 임명 받고 그 지방으로 떠나는 후배에게 송별의 뜻으로 전해 준 편지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행해야 할 귀중한 상식을 열거하였다.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좋은 정치를 이룩할 귀중한 금언임을 알게 된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네 가지 있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臺諫:사헌부와 시간원 벼슬)을 두려워해야 하며,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집으로

라보시더니 문득 '고맙다'고 하셨다. '고맙다'는 말은 어머니의 일상이었지만 그것은 느낌이 달랐다. 어떤지 마지막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찢렁했고, 짧고 간결한 그 한마디가 당신의 생애를 응축해 놓은 것만 같아 또다시 울컥했다. 살면서 어찌 고마운 일만 있었겠는가만 어머니는 어떤 것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다. 늘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물처럼 순한 분이셨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미리 할 말 다 해놓은 듯 깊은 잠에 빠지셨다. 우리는 기껏 조마조마하며 병실 밖을 서성거리거나 목전에 와 있는 이별의 순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뿐이었다. 어디 멀리 출타하는 것은 삼가고, 울리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화기는 늘 가까이에 두고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게 대기 상태로 있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 어머니를 잃는다는 깊은 상실감에 저마다의 슬픔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으려나. 그 얼마간의 시간을 빼면 거의 속수무책인 날들이었다.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 기적처럼 어머니가 일어나신 것이다. 잠에서 막 깨어난 듯 맑고도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서 달빛처럼 곱게... 어머니는 성큼성큼 놀라운 회복세를 보여 주셨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결박당한 몸에서 한결 자유로운 몸으로 날아가 좋아하시더니 마침내 일어나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 보조기에 의지해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걸음이었지만 그런 정도라면 곧 퇴원을 해도 무방할 듯싶었다. 당시 역시 꿈에 부풀었다. 한시바삐 집으로 돌아가 텃밭의 채소도 가꾸고 노인정에 놀러도 가고, 답답한 병실에서만큼은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셨다.

그러나 기적은 완성되지 않았다. 눈에 띄게 차도를 보이던 병세가 주춤춤 제자리걸음을 하더니 그쯤에서 멈췄다. 보조기를 붙잡고 겨우 화장실에 다녀오는 정도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 정도가 정점이었던 것인지 어머니의 건강은 더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갈수록 역행했다. 누군가의 부족 없는 일이설 수도 없는 데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형편이니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틈만 나면 '집으로 갈란다'하고 졸라대시던 것도 찾아들게 되었다. 혹여 집으로 돌아와도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아시는 거였다. 모두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형편이니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당신의 거처는 부득이 병원이거나 요양원 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오시지 못했다. 그렇게 7년을 집 밖에서 지내시다가 지난 겨울 돌아가셨다. 몇 번 집으로 오실 때도 있긴 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면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앉기도 서기도 어려운 분에게 집은 오히려 불편한 것이 더 많았다. 길어야 이삼일 머무는 여권처럼 어김없이 떠나야 하는 것도 마뜩잖은 일이었다. 그마저도 어려워져 영영 떠나시고 말았지만...

하얀 유골함에 담겨 납골당에 계시던 어머니가 다시 거처를 옮기셨다. 높은 하늘과 푸른 나무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있는 곳, 바람 소리 새 소리로 풍성하게 울리는 드넓은 공원이다. 당신 옆에는 먼저와 계신 아버님도 계신다. 오랫동안 그리웠던 사람 옆에 나란히 누웠으니 이제 '집으로' 보내 달라는 말씀은 아니 하시려나.

기고

독립기구에 의한 군인 사망사건 조사 계속돼야



송기훈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군사망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도 어려웠다. 지난해에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망인과 유족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유족과 지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필요하다. 망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기억과 적절한 예우는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도 순직 등의 사망 구분이 군 기록과 달리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1956년도 사망자 3000명 가운데 아직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분은 1124명인데, 이 가운데 군 기록만으로도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야 할 분들이 436명이다. 이 가운데는 1996년과 1997년에 4차례에 걸쳐 군이 일괄하여 순직으로 변경한 바 있는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군의 재심사과정에서 누락된 223명도 포함되어 있다. 1950~60년대 사망 사건은 이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군 기록의 사인이 정확하지 않은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자해 사망사건의 대부분은 사망 원인이 염세 비판, 복무 부적응, 애인 변심, 가정 불화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대나 지휘관보다는 망인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다. 자해 사망사건은 거의 대부분 군복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법령 변화에 따라 사건에 대한 처리가 행령에 맞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한 예로 2022년에는 군 인사법이 개정되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아 위법행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순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군인 사망

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여 사망 시기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대등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유족 등의 진정을 받아 그 사건만 조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진정제도를 모르거나, 진정을 할 유족이 없거나 진정 제기 기간을 넘기면 사건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 오래된 사건은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사망한 경우가 많다. 법령의 변화를 몰라서 진정을 해야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족의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군인의 죽음이 억울하게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를 맡은 기관은 사인에 의문이 있는 모든 사망사건 또는 아직 미순직으로 남아 있는 3만8000여 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망인의 명예회복은 결코 사망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조사는 위원회와 같이 군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적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치밀한 조사를 군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아직 군의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과 시민의 불신이 깊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인을 생각하면, 군이 수행하는 조사는 이해관계자가 자기 사건을 조사하는 꼴이어서 유족과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적정한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도 위배된다. 군인 사망사건 수사를 2022년 7월부터 경찰이 하게 됐지만, 수사와는 별개로 군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관을 속히 다시 구성하여 군인 사망사건을 직권으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社說

민주당 시스템 공천 논란 우려가 현실로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텃밭인 광주에서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5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를 공천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지난 15일 발표한 광주 광산울곡·동남읍이다. 광산읍에선 여론조사 2, 3위 후보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꼴찌 후보를 친명인 민형배 현 의원과 경선하도록 했다. 동남읍에서도 여론조사 1위인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컷오프하고 이병훈 현 의원과 안도걸 후보를 경선에 올렸다. 앞서 발표된 동남읍에서도 여론조사 1위를 다투던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천 배제하고 친명 후보를 현역 파트너로 선택해 논란을 야기했다.

여기에 광주지역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 1곳과 현역 의원이 없는 서구를 지역

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채 여론 조사를 돌린 것이 논란이다. 시스템 공천이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공천 시스템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위해 특별 당규까지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말뿐이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천에 배제된 광산을 예비후보 두 명이 삭멸과 함께 흡수 위장경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4, 5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권자들은 광주 지역 나머지 3개 선거구의 결과를 우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남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아직까지 한 곳도 경선 후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시스템 공천에서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텃밭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진정으로 정권 심판관 이루어려면 텃밭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의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대란 야기 집단행동 명분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예고했던 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파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에서도 조선대 병원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틀 잘 보여준다.

의료 현장 필수 인력으로, 상급 종합병원 의사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오늘날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수술과 입원 연기 등의 환자 관리에 불편을 볼 것 같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는 각각 320명과 142명으로 이들은 병원의 핵심 인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 등은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의료 인력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은 명분이 없다. 껍질이 얼마 전 상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여차 대국민 담화에서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밝혔다. 의료계도 정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만큼 정원 증원 수, 지역·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

강경한 대처로 인한 파국의 피해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우수(雨水)다. 양력 2월 19일경에 해당하는 날로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다. 이 무렵부터는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도 녹으며, 기러기도 추운 북쪽을 찾아 떠나는 시기다. 계절의 변화 앞에는 동장군이냐 혹은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도 녹으며, 기러기도 추운 북쪽을 찾아 떠나는 시기다. 계절의 변화 앞에는 동장군이냐 혹은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도 녹으며, 기러기도 추운 북쪽을 찾아 떠나는 시기다.

한 것은 아니다. 음식, 옷, 풍속 등 다양한 분야에 절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문화와 접목하기도 한다.

우수(雨水) 다음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이다. 개구리뿐 아니라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깨어나 꿈틀거리려는 시기가 이 무렵이다.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진다는 춘분(春分)을 전후해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 그리고 한두 차례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그 이후로는 차례차례 봄꽃들이

존재를 알려준다. 이날과 지역, 계층 등 극단으로 갈린 우리 사회는 중요와 혐오 사회 없는 면이 있다. 특히 날씨가 정도에 따라 바뀌는 특성상 매년 양력은 동일하지만 음력은 달라진다. 이런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음력과 계절의 차이가 클 때는 윤달을 넣어 조정을 했다.

과학이 발달하고 AI시대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24절기가 일상에서 활용된다. 각각의 절기에는 과학적으로 풀어낸 삶의 지혜가 녹아 있다. 날씨와 자연 변화를 토대로 농사에 적용했는데 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비단 농사에만 절기를 적용

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 옷, 풍속 등 다양한 분야에 절기를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문화와 접목하기도 한다.

로 변모된 지 오래다. 올해 우수(雨水)에는 얼었던 대동강이 녹듯 많은 것들이 풀렸으면 싶다. 무엇보다 공공 인 경제가 해방이 돼 서민들 삶에 온기가 들었으면 한다. 무능과 부패, 독선의 정치권을 향해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대 낭망이다. 마지막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려 수많은 이산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하루 빨리 치유되었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구 220-0551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